

서울주보

제2474호

2023년 11월 12일(가해)

연중 제32주일
(평신도 주일)

발행 천주교 서울대교구

발행인 정순택

편집 문화홍보국 주보편집팀

인쇄 가톨릭출판사

전화 02)727-2114

이메일 jubo@seoul.catholic.kr

홈페이지 <http://cc.catholic.or.kr>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seoul_jubo

카카오채널 https://pf.kakao.com/_xhGxjBxb

유튜브 www.youtube.com/@catholictub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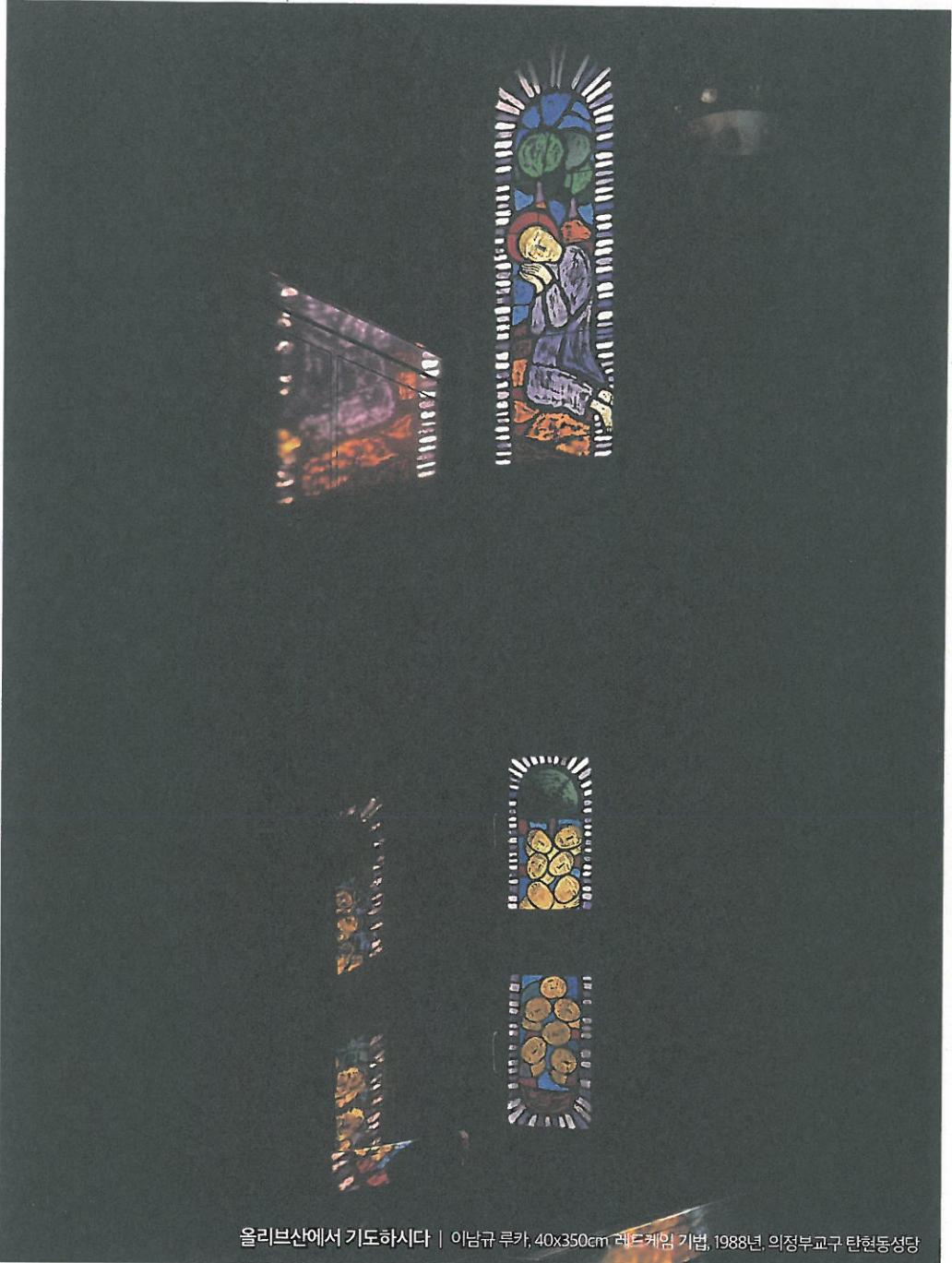
주소 서울특별시 종구 명동길 74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7층 문화홍보국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



올리브산에서 기도하시다 | 이남규 루카, 40x350cm 레드케임 기법, 1988년, 의정부교구 탄현동성당

입당송 | 시편 88(87),3 참조

주님, 제 기도 당신 앞에 이르게 하소서. 제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제1독서 | 치례 6,12-16

화답송 | 시편 63(62),2.3-4.5-6.7-8(◎ 2ㄷ 참조)

◎ 주님, 저의 하느님, 제 영혼 당신을 목말라하나이다.

○ 하느님, 당신은 저의 하느님. 저는 새벽부터 당신을 찾나이다. 제 영혼 당신을 목말라하나이다. 물기 없이 마르고 메마른 땅에서, 이 봄은 당신을 애탏하게 그리나이다. ◎

○ 당신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고, 성소에서 당신을 바라보나이다. 당신 자애가 생명보다 낫기에, 제 입술이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

○ 이렇듯 제 한평생 당신을 찬미하고, 당신 이름 부르며 두 손 높이 올리오리다. 제 영혼이 기름진 음식으로 배불러, 제 입술이 환호

하며 당신을 찬양하나이다. ◎

○ 잠자리에 들어서도 당신을 생각하고, 온밤 지새우며 당신을 묵상하나이다. 정녕 당신은 저를 도우셨으니, 당신 날개 그늘에서 환호하나이다. ◎

제2독서 | 1테살 4,13-18<또는 4,13-14>

복음환호송 | 마태 24,42.44 참조

◎ 알렐루야.

○ 깨어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오리라. ◎

복음을 | 마태 25,1-13

영성체송 | 시편 23(22),1-2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네.



김연범 안토니오 신부 | 사목국장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

사제로 살아가면서 참 많은 부류의 신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신자이면서도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을 만날 때도 있지만, 자신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고 바보스러우리만치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어주고, 조금 손해를 본다고 생각되더라도 착하게 살아가는 신자분들을 만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복음은 ‘열 처녀의 비유’ 말씀입니다.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가 등불을 켜 놓고 늦어지는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다섯은 슬기롭게 등과 함께 기름도 준비했는데 나머지 다섯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한밤중에 신랑이 오게 되었고 그제야 등이 꺼져가는 것을 알게 된 다섯 처녀가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기름을 나누어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그렇게 되면 모두 다 기름이 모자라 등불이 꺼지게 되니 필요한 기름을 따로 구해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섯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도착하여 문은 닫히고 잔치가 시작되어 그 다섯은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이 복음을 들으며 앞에서 이야기한 그 착한 신자들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아는 그 착한 신자들은 그런 요청을 받으면 자기 등이 꺼질 것을 알면서도 거절하지 못하고 자기 기름을 나누어 줄 것이 분명한데…’. 자기도 못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모른척하지 못할 그 착한 신자들 어떡하지?’

앞으로 세 주간에 걸쳐 듣게 되는 복음 말씀은 종말을

준비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묵상하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깨어 있어라. 너희가 그 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마태 25,13) 언제일지 모르는 그 마지막을 늘 준비하며 깨어 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복음의 비유에서는 ‘기름’을 마련하는 것이 그 준비입니다. 비유의 그 기름은 지금 당장 사 올 수 있는 그런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이 지금 나누어 준다고 해서 나누어 받을 수 있는 것도 분명히 아닙니다. 그 기름은 우리 각자가 평생의 삶을 통해 늘 준비해야 하는 기름, 누군가 대신 사거나 만들어 줄 수 없고 나의 노력과 선행을 통해 준비해야 하는 기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름을 잘 준비하며 살아갈 때 그분의 오심이 두렵거나 피하고 싶은 일이 아닌 행복과 즐거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그 날과 그 시간을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오늘도 기쁘게 그 기름을 준비해야겠습니다.

오늘은 제56회 평신도 주일입니다. 세상 속에서 평신도의 사명과 사도직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깊이 묵상하는 오늘, 우리 모두 그 기름을 준비하기 위한 노력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초대하고 그들을 환대하며(연중 제33주일-세계 가난한 이의 날), 그들과 함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며(연중 제34주일-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왕 대축일), 하느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연중 마지막 세 주간을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너희가 그 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마태 25,13)

스테인드글라스는 평소에 인지하지 못했던 하느님을 빛으로 직접 체험하게 해 주는 매개체입니다. 스테인드글라스를 통과한 빛을 바라보며, 저 빛이야말로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시는 진리의 길이며 따뜻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묵상을 하게 됩니다. 제 삶 속에서도 저 빛을 계속 찾고 싶습니다. 매 순간 하느님께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며 하느님의 빛에 대한 가르침을 제 인생에 반영할 준비를 해야 함을 다짐해 봅니다.

작품
설명

박정석 마카엘 | 루크글라스



한경아 아네스 | 작가



| 신부님은 이웃사촌

저는 참 운이 좋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는 어김없이 도움을 주는 이들이 나타났고, 실수와 잘못조차도 더 좋은 날을 위한 밑거름이 되었으니까요. 훗날 운이 좋았던 것이 아니라 살아온 모든 시간에 주님이 함께하시며, 어리석고 악한 일까지 선으로 바꿔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연이라 생각했던 모든 일이 저를 위한 하느님의 계획이었던 거죠.

신부님과 이웃사촌이 된 것도 그중 하나입니다. 이웃집에 붙은 ‘천주교회’라는 현판을 보며 궁금증을 키워갈 때, ‘이냐시오 영신수련’이라고 적힌 대형 현수막이 새롭게 걸렸습니다. 고민 끝에 전화를 걸었고 어머니와 함께 영신수련을 시작했습니다. 학생은 어머니와 저, 둘뿐이었습니다. 신부님의 질문에 답을 할 수 없었으니, 어색하고 불편했습니다. 신부님께서는 저희의 눈높이에 맞춰 묵주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부터 악마와 지옥의 존재, 성경 전체에 걸쳐 나오신 예수님에 대해 가르쳐주셨습니다.

요한 신부님은 영적 아버지이자 스승이셨고 때론 엉뚱하고 재미있는 이웃 할아버지였습니다. 신부님의 사목에 봉사자로 참여하면서 하느님께서 원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냐시오 영신수련’은 신부님께서 새로운 소임지로 떠나실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그 뒤로 저는 유튜브를 통해 신부님들의 강론을 구독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가족들과 성지순례를 다녔습니다. 제주도 ‘면형의 집’으로 떠난 피정에서는 처음으로 성경통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털출기 36장 1절 “주님께서 재능과 총명을 주신 이들은, 모든 것을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구절에 오랫동안 머물게 되었습니다.

기업 및 기관의 역사(社史)를 써왔던 경험을 토대로 수도 회의 역사를 쓸 수 있다면, 회고록을 써왔던 경험을 토대로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분들의 체험을 기록할 수 있다면… 하느님께서 원하신다면 이루어질 것이라 믿으며, 저도 신부님께 제 기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레오나르도 신부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지금, 저는 틈틈이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신 분들을 찾아보며 하느님 체험을 듣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현존하시는 하느님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으니까요. 원고를 직접 집필해 주신 분들의 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한 저를 끊임없이 불러주시고, 써 주시는 하느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랜 친구이자 화가인 안젤라도 이 기쁨에 동참하며 소중한 체험담을 그리고 있습니다.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는 자매들이 즐겁게 작업한다는 것 외에는 정해진 것이 없지만 하느님께서 함께해 주시니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필리피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한컷으로 보는
교회 가르침 ‘위령 성월’

우리가 사랑으로 한 가장 작은 행위로도…
둘 산 이와 죽은 이의 연대 안에서
모든 이의 유익이 되도록 퍼져 나간다.
- 가톨릭교회 교리서 953항

그림 | 송현철 안토니오

영원한 생명을 밟나이다



최현순 테레사 | 서강대학교 전인교육원 교수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요한 20,31)

생명이라는 단어는 신약성경에서 총 140회 나오는데, 바오로 서간에 가장 많고 요한복음에도 적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이들을 일으켜 다시 살리시는 것처럼,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이들을 다시 살린다.”(요한 5,21)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요한 14,6)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이란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말하는 생명은 생물학적 의미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음, 그분께 구원 받았다는 특권을 가리키는 은유적 표현입니다. 구약성경에서 생명은 하느님과 나누는 코이노니아(친교)를 뜻하고, 신약성경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과 누리는 코이노니아를 ‘충만한 생명’이라 표현합니다. 생명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궁극적 희망을 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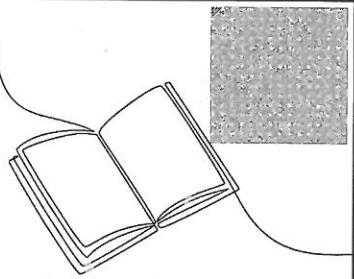
그렇다면 ‘영원한’은 무슨 말일까요? 흔히 영원은 시간 이전 혹은 시간 이후의 무엇이라고 생각합니다. 희랍 문화에서 영원성은 무시간성, 즉 시간의 피안 혹은 시간에 종속되지 않는 것, 그리고 끝없는 시간을 의미했습니다. 그렇다면 신학적으로는 영원을 어떻게 이해 할까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영원은 시간을 포함하고 또한 완성한다고 말합니다. 즉, 영원은 단순히 시간 이후도 이전도 아니며, 시간과 구분되어 있되 시간을 포함하고 동시에 초월합니다. 따라서 죽음 다음에야 영원이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원은 이미 여기에서 시

작되었고, 우리의 시간은 이미 영원 속에 있으며, 마지막에는 영원으로 온전히 들어 높여질 것입니다. 이 논리가 가능한 것은 하느님이 시간의 창조주이실 뿐 아니라, 시간 속에 들어와 현존하시며 시간을 완성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창조하신 세계를 끊임없이 돌보시고 완성으로 이끄십니다. 하느님과 친교가 있는 곳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마지막 날 그분을 뵙게 될 때 충만에 도달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이미 지금 여기’ 시작되었으되,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생명이 하느님과 누리는 친교이기 때문에, 생명은 금덩어리처럼 고정된 무엇이 아닙니다.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에는 하느님께서 나를 온전히 아시듯 나도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믿음과 희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계속됩니다.”(1코린 13,12-13) 바오로 사도는 사랑만이 아니라 믿음과 희망도 남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에 따르면 우리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이”(2코린 5,7)이며, “보이지 않는 것을 희망”합니다.(로마 8,25) 그렇다면 그때에 가서는 하느님을 얼굴을 맞대고 볼텐데 왜 여전히 믿음과 희망이 필요한 걸까요?

하느님과 피조물 사이에는 영원한 차이가 있습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무한하신 하느님을 남김없이 볼 수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느님을 마주본다 하더라도 믿음과 희망의 공간은 여전히 남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생명을 누리는 일은 영원 안에서 영원히 새롭울 것입니다. 하느님을 뵙고 영원히 새롭게 알며 영원히 새롭게 희망하고 영원히 새롭게 사랑하게 되지 않을까요?

사도들의 기쁨과 삶을 담은 사도행전 읽기



로마 시민권과 부활에 관한 믿음 (22.22-23.22)



김덕재 안드레아 신부 | 사목국 성서못자리 담당

영화나 소설을 보면, 마지막 절정을 향해 달려가는 클라이맥스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가 바로 바오로 복음 선포 여행의 마지막 절정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로마까지 복음 선포의 중언자가 되는 여정입니다.

바오로는 예루살렘에서 소동을 일으킨 혐의로 천인 대장에게 체포되었지만, 이를 기회로 삼아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자신의 회심 경위를 들려줍니다. 그러나 유다인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집니다. 천인대장은 바오로를 피신시켰고, 도대체 왜 그들이 바오로를 거세게 반대하는지 심문을 통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심문을 받던 바오로는 천인대장의 부하인 백인대장에게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밝힙니다. 그 당시 로마 시민에게는 중요한 특전이 있었습니다. 그 특전은 로마 시민은 로마법으로만 심판할 수 있고, 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는 구금하거나 처벌을 가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문 과정에서 구금과 채찍질을 지시했던 천인대장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채찍질은 당시 노예나 외국인 또는 죄인들에게 강제로 진술을 끌어낼 때 쓰던 일반적인 방식이었기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오로에게는 굉장히 부당한 처사였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에 처한 천인대장은 바오로를 최고의회에 데려갑니다.

바오로는 최고의회에서 자기 자신을 변론합니다. 변론의 중심은 죽은 이들의 부활에 관한 믿음이었습니다.

결국 서로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두가이파와 바리사파는 대립합니다. 그리고 바오로와 같이 죽은 이들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던 바리사이들은 바오로에게 아무런 죄가 없음을 선언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리스도교를 박해하려던 로마인들에게 큰 시사점을 안겨줍니다. 그리스도교는 유다교와 전혀 다른 종교가 아니라, 유다교의 바리사이파와 비슷한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교는 박해를 받아야 하는 종교가 아니라 유다교와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인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죽은 이들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성취되었다는 복음 선포적인 내용도 함께 전달됩니다. 결국 최고의회는 바오로의 재판이 아닌 서로간의 논쟁의 자리로 바뀌게 됩니다. 저자인 루카는 이 모든 일들이 바로 로마에서 주님을 중언하기 위한 과정임을 드러냅니다.

“용기를 내어라. 너는 예루살렘에서 나를 위하여 중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중언해야 한다.”(23.11)

그리스도인의 중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부활을 위한 하나의 관문이 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 모든 것을 알았다고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부활의 기쁨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온전히 굳게 믿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은 생태적 소명



김소라 율리안나 | 하늘땅물벗 불휘벗

불휘벗은 생태 사도로서 생각을 같이 하는 불휘햇빛발전협동조합원 6명이 영적 지도 신부님과 함께 활동하는 하늘땅 물벗 모임입니다. 조합은 2019년 설립되어 교회의 유휴 부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 재생에너지 전환 사업과 함께, 에너지 진단, 생태 감성 함양 활동 등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2년에는 조합원을 위한 '에너지 포럼'을 실시하고, 지구 대표 성당에서 조합원을 위한 월례 미사 후에 생태적 사도 활동을 통해 《찬미받으소서》 회칙에 따른 생활 속 실천 사례 발표 및 나눔, 호야 화분 만들기 등의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도심을 벗어나 대전교구 성지에서 월례 미사를 봉헌하여, 조합원들이 순교 성인의 영성을 본받으며 자연의 아름다움과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포럼〉

2022년 6월부터 총 6개의 주제로 진행했는데, 수원교구 성남동 본당 주임 신부님께 자원 재순환 활동에 대한 강의를 듣고 깨끗한 상태로 분리배출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찬미받으소서》와 함께 하는 생태적 회개'를 주제로 마리 베

로니카 수녀님의 강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태양광 에너지와 지역 에너지 자립'이라는 주제로 오수영 교수님의 강의가 이어졌는데, 먼 바닷가에서 오는 전기가 아닌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로 자립하는 것이 중요함을 깨달았습니다.

네 번째로 'RE100 시민되기 참여 전략' 강의를 강원도 삼척에서 활동하시는 성원기 교수님께 듣고, 우리 집에 태양광을 설치할 수 없다면 출자를 하여 다른 곳에라도 설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온실가스 진단 활동과 탄소 중립 성당'을 주제로 포럼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올해 (2023년)에는 에너지 진단 활동가를 키우고, 대전교구의 모든 성당이 에너지 진단을 하는 등 탄소 중립을 위해 현재 상황을 파악하는 계획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강의 주제는 '제로 에너지 주택과 태양광의 이해'였고, 디딤 벗님이 살고 있는 제로 에너지 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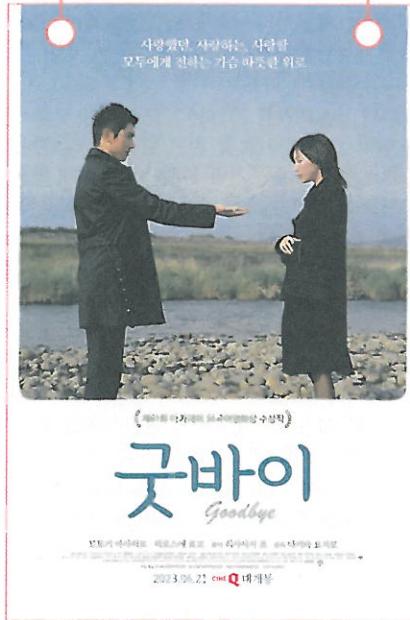
의 집에서 회합을 실시하여 실내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환경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강의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불휘햇빛발전협동조합 홈페이지 (<http://www.bulhuisun.com> – 커뮤니티 – 조합소식)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생태 감성 함양 활동〉

올 여름에 청양 다락골성지에서 월례 미사 후 나뭇잎으로 손수건 염색하기 활동을 하였습니다. 남천과 단풍잎, 은행잎 등이 손수건에 그림자처럼 물드는 모습을 보며 종이 티슈를 덜 쓰겠다는 결심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정산성지의 이도기 바로 복자가 신부님을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첨례표를 지키며 신앙생활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창조시기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생태달력을 지키며 하느님과 이웃을 섬기고 피조물을 돌보며 살아가는 하늘, 땅, 물의 벗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영화칼럼



영화 '굿바이'

죽음은, 선물을 포장하며 묶는 리본의 매듭 같은 것



구본석 사도요한 신부 | 행당동성당 부주임

2008년 감독_타키타 요지로

부제 때 동기들과 함께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에서 해부학실습을 참관했던 적이 있습니다. 낯선 경험을 해본다는 점에서 설레는 마음이 들기도 했고, 시신을 해부하는 모습을 제대로 마주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밀려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참관이 시작되자 이전에 가졌던 설렘과 걱정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실습에 앞서 집도를 담당하는 교수님은 시신을 기증한 고인의 지나온 삶의 연혁을 둘어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기증자의 지난 삶의 역사와 어떠한 병을 앓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어떠한 지향으로 시신을 기증하게 되었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 함께 시신 기증자와 기증자의 가족을 위한 기도를 바쳤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자 생면부지인 한 사람의 죽음에 깊은 슬픔을 느끼며 애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증자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가졌을 생각과 감정을 감히 헤아려보기도 했습니다. 또한 기증자의 가족들을 향한 위로와 감사의 마음도 갖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드러난 기증자의 장기와 피는 사람의 육신에 불어있는 한낱 고깃덩어리처럼 여겨지거나 피칠갑이 난무한 영화 속의 잔혹한 장

면처럼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숭고했을 삶의 과정을 견뎌낸 육신의 일부이자 기증자의 삶의 역사를 함께 감내한 동반자처럼 다가왔습니다.

타키타 요지로 감독의 영화 <굿바이>(おくりびと, 2008)는 저로 하여금 한 사람의 죽음을 고귀한 시선으로 마주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 해부학실습 참관 때의 기억을 떠오르게 하는 작품입니다. 영화는 도쿄에서 철리스트로 활동하던 주인공 다이고(모토키 마사히로 분)가 본인이 속한 악단이 재정난으로 해체되자 철리스트의 삶을 내려놓고 아내 미카(히로스에 료코 분)와 함께 자신의 시골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다이고는 고향에서 일할 직장을 구하던 중 여행사인 줄 알고 취직한 회사가 인생의 마지막 여행인 죽음을 배웅하는 전문 납관 회사임을 뒤늦게 알아차리게 됩니다. 얼떨결에 납관 회사의 대표 이쿠에이(야마자키 츠토무 분)에게 염습하는 법을 배우게 된 다이고는 고인의 몸을 깨끗이 닦고 단장해 생전의 모습처럼 따뜻한 온기를 불어 넣어 주는 자신의 일에 차츰 사명감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다이고의 손은 섬세하게 철로 줄을 켜던 손에서, 세상을 떠난 이들의 생의 매듭을 묶어주는 손으로 거듭

납니다. 하지만 아내 미카와 주변의 지인들은 다이고의 새 직업을 편견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며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다이고가 굴하지 않고 자신의 일에 충실하며 정성껏 염습을 하는 모습을 보이자, 납관사를 향한 편견으로 가득했던 이들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떠난 이가 남긴 삶의 흔적과 세상을 떠난 이를 향한 남겨진 이들의 심경을 섬세한 마음으로 가늠해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언젠가 맞게 될 '나의 죽음'이 낯설지 않게 다가올 것입니다. 영화의 주인공 다이고가 세상을 떠난 이들을 배웅하며 얻게 된 것은 바로 자신의 죽음을 미리 떠올리며 직면해볼 수 있는 용기와, 자신의 생을 향한 겸손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매해 11월마다 지내는 위령 성월도, 이미 세상을 떠난 이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한 기도를 바치는 과정 안에서 나의 죽음을 미리 가늠해볼 수 있는 용기와 자신의 생을 향한 겸손을 깨우치도록 이끕니다.



유튜브 채널 <가톨릭튜브>에서
'비하인드 영화칼럼'을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오늘(11월 12일)은 '평신도 주일'로 2차 현금이 있습니다

주교회의 2023년 추계 정기 총회 결과

- ❶ 주교회의 가정과 생명 위원회가 마련한 "혼인 교리서"를 승인. 가정과 생명 위원회는, 급변하는 시대에 가치관의 혼란으로 혼인과 가정에 대한 그리스도교적 가치관을 정립하지 못한 채 혼인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체계적이고 적절한 방법으로 혼인과 가정에 관한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을 전달하기 위하여 이 교리서를 마련함.
- ❷ 주교회의 교육위원회가 마련한 "한국 가톨릭 학교 교육사"를 승인. 교육위원회는, 한국 가톨릭 학교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이를 통해 급변하고 있는 오늘 날 교육 현장에서 왜 가톨릭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일인지, 왜 가톨릭 학교 교육의 목표가 '복음화와 전인교육'인지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국 가톨릭 학교 교육사" 편찬을 기획함.
- ❸ 주교회의 교육위원회가 마련한 종교 교과서 "삶과 종교"를 승인. "삶과 종교"는 교육위원회의 '2022 개정 교육 과정에 따른 종교 교과서 개발 사업'의 결과물로, 교육부의 인정 교과서로 승인받기 위한 절차를 거칠 예정.
- ❹ 한국가톨릭사목연구소가 마련한 "한국 천주교회 코로나19 팬데믹 사목 백서" (이하 '사목 백서')를 승인. 코로나19 팬데믹이 가져온 직간접적 영향과 그에 따른 사목 실천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국 천주교회의 사목 과제와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사목 백서에는 사목 주제별(사회, 종교 의료, 수도회, 전례, 청소년·청년, 생태, 신학·사목) 전망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를 살아가는 교회를 위한 사목 제언이 수록됨.
- ❺ 서울대교구 제11대 교구장 김수환 스티파노 초기경의 시복을 서울대교구에서 추진하는 것에 만장일치로 동의.
- ❻ 성직 자치단과 관련하여 교회법 제295-296조를 개정하는 자의 교서(2023년 8월 8일)와, 축성생활회에서 제명된 회원의 소원 기한과 관련하여 교회법 제700조를 개정하는 자의 교서(2023년 4월 2일)에 따라 개정된 교회법 조항(제295-296조, 제700조)의 우리말 번역문을 승인.

교구청 알림

세계자살유가족의 날 기념행사

대상: 자살유가족 및 자살예방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행사: 1부 10시 미사(유경춘 주교 집전), 2부 11시 특강(정현재(전)서울대학교 의학 박사)
때, 곳: 11월18일(토) 10시~13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명동) / 신청: 홈페이지(3079.or.kr) 참조
문의: 02)727-2495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

경찰사목위원회 선교사 모집

대상: 경찰사목 선교사 활동에 관심 있는 견진성 사를 받은 서울대교구 신자
교육기간: 11월29일부터 매주(수) 오전 10시(16주 과정)
곳: 가톨릭회관(명동) / 회비: 10만원
11월21일(화)까지 접수 / 경찰사목 선교사 활동 및 교육과정은 홈페이지(<http://www.catholicpolice.or.kr>) 참조
문의(신청): 02)742-9471, 3 경찰사목위원회 교육센터

사목국 영성심리상담교육원

1) 2023 영성심리아카데미 / 문의: 02)727-2126
영성심리특강(송봉모·오웅진·홍성남·김하종 신부), 이지나 작가의 영적글쓰기
신청: 홈페이지(<http://seoulcpc.catholic.or.kr>)-교육신청
2) 서울가톨릭상담센터 개인심리상담
심리정서(불안, 우울, 성격), 대인관계 어려움, 직장 및 학교 부적응, 가족관계 등 성인상담
곳: 서울대교구청 별관 가톨릭상담센터 B106호(명동), 노동사목회관(보문역), 노원성당, 삼성산성당, 천호동성당, 화곡본동성당
문의(예약/문자 가능): 02)727-2139(월~금 10시~17시)
전화상담: 02)727-2137(월~금 10시~17시)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 2023년 정기 학술 세미나

주제: 생의 말기의 쟁점과 과제 / 문의: 02)460-7623
때: 11월18일(토) 14시, 수원교구청 2층 강당
주교회의 홈페이지(www.cbck.or.kr) 참조

시복시성 기원미사(192회)

이달의 하느님의 종 '고의진 요셉'
때: 매월 셋째주(화) 11월21일 오전 10시
곳: 절두산 순교성지
문의: 02)2269-0413 순교자현양위원회

주교회의 여성소위원회 정기 세미나 안내

때: 11월21일(화) 오후 2시~5시 / 문의: 02)460-7641
곳: 서울대교구청 신관 5층 501호실
주제: '노년기 여성의 영성' - 사회적 기여와 관계 성 증진을 위하여 /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희망으로 가는 길(낙태 상처 치유 프로그램 및 미사)

대상: 낙태의 상처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
때: 11월14일 매월 두번째(화) 13시30분~16시30분
곳: 서울대교구 교구청별관 6층 소성당
문의: 02)727-2353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가톨릭 성음악아카데미 겨울학기 모집(성음악위원회)

대상: 연령 무관, 초급~최고급 과정까지
접수 및 등록: 11월1일(수)~24일(금) / 3개월 수업(12월~2024년 2월)
곳: 최양업홀(전철 1·4호선 서울역, 2·5호선 충정로역)
문의: 02)393-2213~5(<http://www.casm.co.kr>)

겨울 학기	실기전문 과정	오르간·피아노·바이올린·설악·합창지휘·작곡·CCM·관악기·현악기·바로크악기·국악
	양상별	그레고리오성가(남·여)·성악(남·여)·플루트·현악·목관·리코더·클래식기타 등

❷ 주교회의 교육위원회가 주관하는 주교회의 사회주교위원회 산하 위원회의 공동 심포지엄을 "가톨릭 학교 교육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주제로 하여 2023년 11월 24일(금) 서울 명동 고스트홀에서 개최하기로 함.

❸ 대한민국-교황청 수교 60주년 기념 미사를 2023년 12월 11일(월) 오후 4시, 서울대교구 주교좌 명동대성당에서 거행하기로 함. 한편, 한국-교황청 관계사 발굴 사업팀은 '대한민국-교황청 수교 60주년 기념' 관계사 발굴 사업 학술 심포지엄을 2023년 11월 21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 회관에서 개최할 예정.

❹ 주교회의 교리교육위원회, 민족화해위원회, 사회홍보위원회, 생명윤리위원회, 생태환경위원회, 성서위원회, 신앙교리위원회, 전례위원회, 정의평화위원회, 노동사목위원회, 사형제도폐지위원회, 평신도사도직위원회, 여성소위원회 회회칙(개정안)을 승인.

❺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저작물을 이용하여 복음화를 위한 영상물을 제작하고 공식 홈페이지와 SNS 등에 게재와 배포를 할 수 있도록 '영상물 제작과 배포에 관한 저작권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추가한 '복음화를 위한 개별 교구의 저작권 사용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승인.

❻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자의 교서 「바다의 별」(Stella Maris, 1997년 1월 31일)에 따라 주교회의 해양 사목 담당 주교를 임명하여 달리는 교황청 온전한 인간발전촉진부의 요청에 따라, 주교회의 해양 사목 담당 주교로 인천교구의 정신철 주교를 선임.

❼ 한국 주교회의 정관(제15조 제6호, 제16-18조)에 따라 주교회의 임원, 상임위원, 감사, 주교위원회와 전국위원회 위원장, 담당 주교를 선출.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27년 11월 19일 손성재 야고보 신부(50세)
- 1987년 11월 14일 조인환 베드로 신부(74세)
- 2002년 11월 16일 박병윤 토마스 신부(75세)
- 2019년 11월 17일 오기오 요한크리스토포 신부(68세)
- 2019년 11월 18일 박성구 요셉 신부(70세)

갤러리1898 전시 안내 / 문의: 02)727-2336

신성태 개인전: 1전시실
김유경 개인전: 2전시실
경기도 55회 DiFiPhoNo 사진전: 3전시실
전시일정: 11월15일(수)~23일(목)

민족화해위원회

1)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내 마음의 북녘 본당' 미사)
때: 1392차 미사 11월14일(화) 19시, 명동대성당
이번 주 기억할 본당: 평양교구 진남포 본당, 중화 본당
미사 후, 한반도 평화와 북녘본당을 위한 목주기도 봉헌합니다 / 문의: 02)727-2420

2023 한반도 평화나눔포럼

주제: 한반도 화해와 평화에 이르는 길
때: 11월18일(토) 10시 / 문의: 02)3789-0815
곳: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진리관(혜화동)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sharepeace.net) 참조

환경사목위원회

1) 제56차 피조물 보호를 위한 미사(우리의 지구를 위한 미사)
때, 곳: 11월16일(목) 11시, 가톨릭회관 1층 소성당(명동)
대상: 기후위기와 생태환경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과 후원회원 / 문의: 02)727-2283, 2278 환경사목위원회
주례 및 강론: 이재돈 신부(환경사목위원회 위원장)
2) 본당 사목위원회 생태교육
대상: 본당 생태환경 관련 사목위원, 관심 있는 일반 신자
때: 11월22일(수) 19시~21시 / 회비 없음
곳: 가톨릭회관 1층 강당(명동)
내용: 특별 사목교서 '회칙『잔미반으소서』를 배우고 실천합시다'(이재돈 신부, 환경사목위원회 위원장)
문의: 02)727-2283, 2278 환경사목위원회

인준단체 알림

모임

훈인성소 찾기 피정 / 문의: 010-3173-2665
접수: 다음카페 'oh oh my half' / 최영민 신부(예수회)

일본 가고시마교구 성지순례
곳: 가고시마, 나가사키, 아키타, 북해도, 도쿄, 오사카
회비: 120만원(3박4일) / 문의: 010-3645-9028

토아올람 후원회 화요 치유 피정
때, 곳: 매주(화) 12시30분~16시, 가톨릭회관 7층
담당: 김종국 신부 / 문의: 010-5514-4077 회장

예수전교회 치유대피정
강사: 한정옥 / 문의: 010-8898-6770
때: 11월18일 오후 1시~5시(4시 토요특전미사)
곳: 가톨릭회관 7층 강당 / 담당: 김인성 신부

위령성월과 성모님 둑상 피정
강사: 이영근 신부(율리베파노 수도원 소속)
때, 곳: 11월20일 9시30분~13시, 가톨릭회관 7층 강당
문의: 010-2724-4819 마리아학교

수도자들과 함께하는 성탄 전례 피정
때, 곳: 12월23일(토) 16시~25일(월) 13시, 왜관 피정의 집(주최) / 문의: 054)971-0722, 010-6791-0071
회비: 25만원 / 계좌: 대구은행 504-10-102896-6
(제)왜관성베네딕도수도원(접수 후 입금)

바오로교육관 본당단체 피정 / 문의: 010-4229-7894
내용: Visio divina(성화)와 클래식 음악과 함께하는 피정
대상: 본당 단체, 소그룹 피정 / 인원: 15명~25명
때, 곳: (금)·(토) 가능, 살트르성바오로수녀회 바오로 교육관(명동대성당 성모동산 뒤편)

성 이냐시오의 영신수련 피정
피정동반자: 신원식 신부(예수회)
때: 12월6일(수) 18시~10일(일) 16시~40분
곳: 제주 성 이시돌 피정의 집 / 문의(접수): 064)739-0951, 010-3884-0951 성프란치스코평화센터
회비: 40만원 / 계좌: 농협 301-0197-3172-01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성 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쉼과 성지순례, 계절마다 아름다운 제주여행과 자연순례
대상: 개인, 가족, 본당 구반장, 소규모 모임
때: 연말연시(해넘이·해돋이·눈꽃산행) 12월30일~2024년 1월2일, 한라산 자연순례 11월27일~29일, 12월8일~10일, 12월16일~18일, 눈꽃산행 1월6일~8일, 1월12일~14일, 1월19일~21일, 1월27일~29일, 2월3일~5일, 2월14일~16일 / 문의(접수): 02)773-1455, 064)796-4182

성 도미니코 선교 수녀회 피정
곳: 도미니코 피정의 집(주최, 횡성)
성경 완독 12월8일(금)~16일(토) / 010-3340-0201
카타리나 피정의 집(개인·자체취사) 010-9715-1203

예수고난회 서울 명상의 집 피정
곳: 예수고난회 서울 명상의 집
문의: 02)990-1004 / 개인·단체 피정 접수 가능
수험생을 위한 기도의 날 11월16일(목) 10시~15시 / 식비: 1만원
대림 피정 12월5일~12일·19일 매주(화) 10시~16시
대침묵 피정 12월8일~10일(2박3일)

제주 면형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신부들과 함께 제주 성지·역사·생태 순례와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 순례 피정
문의(접수): 02)773-1463, 064)756-6009

자연 순례	11월21일~23일, 11월26일~28일, 12월1일~3일, 12월9일~11일, 12월15일~17일
눈꽃산행	2024년 1월20일~22일, 1월26일~28일
연말연시 특별 피정	12월29일~1월1일(눈꽃산행)

예수수도회 영성센터(서울) 프로그램
곳: 전철 1·7호선 온수역 10분 거리 / 010-6890-7223
세월의 지혜 영성 피정 11월20일~24일 / 65세 이상
엄마와 딸(미혼) 피정 11월25일~26일
영신수련 2박3일 피정 11월17일~19일, 12월1일~3일
대관(30인 이하) 위탁 피정 소규모 피정·연수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곳: 문산 예수마음 피정의 집(주최)
문의(접수): 010-4906-5722, 031)953-6932

1박2일	12월16일(토)~17일(일), 2024년 1월20일(토)~21일(일)
3박4일	11월16일(목)~19일(일), 12월7일(목)~10일(일)
8박9일	11월22일(수)~30일(목), 12월26일(화)~1월3일(수)
40일	12월19일(화)~1월27일(토)

서울대교구 성령쇄신봉사회 기도회
곳: 전철 2호선 신림역 5번 출구, 버스 환승 500·504·6512-5535 천주교성령봉사회관 하차 / 02)867-7900

주일기도회	(일) 13시20분~17시	미사: 16시
월요법기기도회	(월) 18시30분~22시	미사: 21시
치유기도회	(수) 13시~17시	미사: 16시
로사리오기도회	(목) 13시~17시	미사: 16시
청야기도회	(금) 18시~22시	미사: 21시
생명축복기도회	(토) 16시~19시30분	미사: 18시
청년(루하)기도회	(금) 19시30분~21시30분	미사: 20시30분

교육
성몰·묵주조각 기초에서 전문까지(가톨릭목공예)
카페: cafe.naver.com/cmc04 / 문의: 010-5234-5044

음악심리 상담사 자격 초급반
때, 곳: 12월12일~26일 매주(화) 13시30분~16시30분, 한국음악치료연구소(전철 3호선 대청역) / 회비: 15만원
문의: 010-4252-1165 가톨릭성음악클래식기타회

가톨릭노동장년회 풍물패 '풍울림'
장구, 북, 꿩과리 같이 배우고 싶은 분 초대합니다
때, 곳: 매주(월) 19시, 노동사목회관
회비: 3만원(수시 모집) / 문의(접수): 010-3239-9308

1년에 읽는 구약성경(Zoom·대면 병행)
지도: 김성태 신부(작은형제회-주최) / 010-4598-6912
때: 2024년 1월~12월 (일) 16시~18시
곳: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정동) / 회비: 12만원 씩 4회

예비자 통신교리(우편·사이버·신자재교육)
주소: 서울시 중구 장충단로 188, 분도빌딩 506호
주최: 가톨릭교리통신교육회 / 회비: 1만원
문의: 02)2274-1843, 4 / 홈페이지: www.cdcc.co.kr

2024년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우편) 신학과정 모집
대상: 수도자 및 평신도(만 18세 이상)
내용: 가톨릭 신학 전반 24권 교재, 26과목 공부
원서접수: 11월13일(월)~2024년 2월16일(금)
문의: 02)745-8339(<http://ci.catholic.ac.kr>)

미국가톨릭사립학교 1월 입학생 모집

대상: 초5~고1 / 1월 출발

겨울방학 7주 단기연수 및 단·장기

학교 입학 / 문의: 02)2258-8983

www.oakinternational.co.kr

주최: 그리스도 레지오회 운영 해외학교법인

커피바리스타 교육(여성생활연구원) / 문의: 02)727-2472

(사)한국커피협회수석심사위원 특강 흄카페마스터자격증반

성가발성 노래교실 / 문의: 010-9842-8818

'다함께 성가를 TV' 이호중 교수 직강

곳: 시스띠나음악원(주최, 신촌)

'탈종교화 시대 한국가톨릭의 미래와 전망' 세미나

때, 곳: 11월23일(목) 14시~17시, 가톨릭회관 2층

강당(203호) / 문의: 010-2053-8695 주 세레나

누구나 참여 가능 / 주최: 한국가톨릭문화연구원

2024학년도 인천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모집

접수기간: 11월16일(목)~23일(목) / 모집: 조형예술학과, 그리스도교미술학과, 디자인콘텐츠학과, 간호학과

전형방법: 포트폴리오, 면접, 연구계획서 / 입학문의:

[032\)830-7022, 3 송도국제캠퍼스 입학홍보과](http://032)830-7022, 3 송도국제캠퍼스 입학홍보과)

발달장애인을 위한 엔젤스 주일학교 학생·교사·봉사자 모집
엔젤스 주일학교는 미사 참례 및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신앙교육을 돋는 발달장애인 주일학교입니다
학생 모집 대상: 초등~성인기 발달장애인(지적 장애·자폐성 장애) / 교사 및 일반 봉사자 모집: 교리 교사 또는 활동 보조 봉사 가능하신 분
때, 곳: (일) 15시~17시, 잠원동성당
문의: 010-9942-2590 (문자) 잠원동성당

대안교육 산자연중학교 입학 / 문의: 054)338-0530

전학 관련 사항은 교무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학설명회 11월25일(토) 14시

겨울진학캠프 2024년 1월13일(토)~14일(일) 대상: 현 초6

2024학년도 전기 2차 교회음악대학원 신입생 모집

원서접수: 12월4일(월)~15일(금) / 전형일: 2024년 1월5일(금)

곳: 최양업홀(전철 2·5호선 충정로역, 1·4호선 서울역 하차)

문의: 02)740-9704(<http://songsin.catholic.ac.kr/music>)

석사 과정(5학기) 오르간, 작곡(CCM 작곡), 합창지휘전공

석사학위 및 가톨릭교회 인준의 고급교회음악가 자격증 수여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2024년 전기(주간) 신입생 모집

원서접수: 11월27일(월)~12월4일(월)~전형일 12월9일(토) / 홈페이지: <http://gsot.sogang.ac.kr>

문의: 02)705-8668 / 영성·철학상담: 철학을 중심

으로 신학, 사회복지학 세 전공의 협동과정임

석사 신학, 철학(철학·철학상담), 사회복지학(사회복지·복지상담), 가톨릭사회복지학, 영성·철학상담

박사 신학(교의·조직 / 영성), 가톨릭사회복지

석·박사 통합 학(실천·정책·행정), 영성·철학상담

제23회 가톨릭평화방송 겨울방학 영어캠프

문의: 02)734-0999(www.cpbccamp.com)

미국 LA영어캠프 2024년 1월10일~30일 / 디즈니랜드, UCB벌리·스탠포드·UCLA 재학생 간담회, 유니버

설, 그랜드캐년, 실리콘밸리, 샌프란시스코

사이판(4주) 1월10일~2월3일 / 가톨릭국제학교 정규수업,

마나가하섬, 정글투어 다양한 현지 액티비티

모집

명동대성당 가톨릭여성합창단 신입단원 모집
대상: 30세~50세 여성 교우
때: 11월26일 13시 / 문의: 010-6303-1365

재속전교가르멜회 회원 모집

전교가르멜수녀회의 은사에 따라 관상과 활동으로 복음적 삶을 살고자 하는 남녀 평신도
11월30일까지 접수 / 010-5399-3371, 010-9572-8282

국악성가 한길합창단 단원 모집

때, 곳: 매주(금) 19시, 국악성가연구소
오디션곡: 가톨릭성가 중 자유곡 1곡
지도: 강수근 신부 / 문의: 010-3733-6526

미사

한국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 / 문의: 02)3673-2525
때, 곳: 11월16일(목) 오전 10시, 사당5동성당

글라렛선교수도회 서울후원회 월례미사

때, 곳: 11월20일(월) 11시, 글라렛선교수도회 본원(성복동) / 문의: 02)743-7026, 010-7764-6031

故 차동엽 노르베르토 신부 선종 기일 미사

때, 곳: 11월12일(일) 14시, 미래사목연구소(주최, 김포시 고촌읍 신곡로 134) / 문의: 031)986-7141

새천년복음화학교 후원회 월례미사

미사: 김영훈 신부(사목국 교육지원팀)

때, 곳: 11월16일(목) 낮 12시, 가톨릭회관 3층

서강대학교와 함께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마음 평화 미사
때, 곳: 11월17일(금) 19시, 서강대학교 성이니아시오 성당 / 미사 후 성체현시가 있습니다
문의: 02)705-8161 서강대학교 교목처

살레시오와 꿈 월례미사·겨울 성소 피정

1) 살레시오와 꿈 월례미사

때: 11월13일(월) 10시30분 / 지도: 염동구 신부
곳: 가톨릭회관 2층 205-3호 / 문의: 02)828-3522
2) 2024년 살레시오 겨울 성소 피정 / 문의: 010-6221-3520
대상: 고1~35세 미만 남성 / 12월31일까지 접수
때, 곳: 2024년 1월19일~21일, 살레시오회 관구관

안내

성빈센트정신분석상담센터

대상: 성인, 청소년, 아동, 부부, 집단상담
내용: 대인관계 갈등, 성격문제, 우울, 강박, 정서불안
곳: 성북구 아리랑로62 / 문의: 010-4261-1113
차영임 수녀(성빈센트드뢰자비의수녀회)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문의·국내입양상담: 02)764-4741~3(www.holycac.or.kr)

봄길 심리상담연구소(마리스타 교육수사회)

전문상담: 청소년, 개인, 부부, 가족, 영성 / 첫회 무료
곳: 협정 / 문의(예약): 010-8981-8356 (전화상담 가능)

수도원 재건축을 위한 도움 요청

익산 클라라봉쇄수도원은 보수공사로 유지가 어려워 재건축이 불가피합니다 도움을 결손되어 청합니다 / 문의: 010-6680-0692

계좌: 국민 753501-01-480346 (재)천주교유지재단

고메스심리상담소(도미니코 수도회)

상담을 통한 치유와 성장이 있는 따듯한 동행
내용: 가족, 부부, 갈등, 심리, 영적성장
방법: 대면, 온라인, 전화 모두 가능(주1회)
문의: 010-3201-0520 노경덕 신부(상담자)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알코올 전문병원, 중독증점치료(도박·인터넷 게임)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진료
때: (월~금) 9시~17시·야간진료 (화) 18시~20시30분
곳: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역 7번 출구 5분 거리
문의: 031)810-9200 / 홈페이지: www.karf.co.kr

천주교 인천교구 운영 봉안당 접수

곳: 인천 서구 당하동 산152-1 백석묘지 하늘의 문 성당
접수: 인천교구청 방문 및 온라인 위치 선정
서류: 교적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봉안기간: 60년(30년 후 30년 연장 가능)
봉헌금: 400만원·500만원 / 준공: 2024년 하반기(예정)
문의: 032)765-7251(<http://haneul.caincheon.or.kr>)

진애인 가족치료연구소

곳: 명동 / 02)587-9207(<http://jinaein.com>) 토요상담 가능

개인심리치료	불안, 우울, 분노, 공황장애, 강박적 행동 등
가족심리치료	부부, 가족(자녀)간의 갈등, 행동문제, 대인기피

2023년 가톨릭성가페스타 축제

때: 11월18일 가톨릭성가 축제 / 티켓: 전석 2만원
곳: 서소문성지 콘솔레이션홀 / 문의: 010-5245-2848
심준보(서울대교구성음악위원회·가톨릭동북아평화연구소)

13시	가톨릭시니어합창단 연주회 / 지휘: 이상희
16시	살루페콰이어 연주회 / 지휘: 강지미
17시30분	가톨릭 성가대 코랄콘서트

유관단체 알림

떼제노래와 함께하는 기도모임

대상: 청년, 청소년과 동반 부모 / 문의: 02)744-0840
때, 곳: 매월 세번째(토) 11월18일·12월16일 16시,
햇살사목센터 성당(주최, 혜화로2길20)

베리타스심리상담센터 / 문의: 02)776-7726

심리상담 및 모래놀이치료

가톨릭회관 501호(명동) / 정서적·심리적인 어려움이 있는 아동, 청소년, 성인, 부부갈등, 우울증, ADHD, 공황장애, 보다 더 행복한 삶을 위한 상담을 원하는 분, 심리검사

미술심리교육과정 11월20일~12월18일(월) 10시~15시(5주)

직원모집

성가복지병원 직원 모집 / 문의: 02)940-1503

분야: 내과전문의 1명, 시설과·전기·기관기사
자격증 소지자 1명 /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명일동성당 관리인 모집

분야: 관리인 1명(계약직) /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된 신자로 시설물 관리, 미화, 기타 방호 업무 가능한 분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 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11월19일까지 방문·우편(우 05235, 강동구 양재대로 156길 28) 접수 / 이메일(belle14@seoul.catholic.kr) 문의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홍보담당 직원 모집

분야: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홍보담당 직원 모집 1명
1년 계약직(정규직 전환 가능) / 11월17일(금)까지 접수
대상: 홍보업무 경력자(홍보컨텐츠 제작, 언론홍보 등)
문의: 02)727-2234 재무행정팀 이효림
세부사항 필히 참조-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홈페이지(www.caritasseoul.or.kr-알림참여-채용공고)

일원동성당 사무원 모집

분야: 사무원 1명(계약직 근무 후 정규직 전환 가능)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된 성실한 신자로 사무 행정 및 간단한 카페 업무 가능한 분 / 이메일 문의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 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해당자 개별 연락) / 11월19일(일)까지 이메일(yhj6362@seoul.catholic.kr) 및 우편(우 06336,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109길38 일원동성당) 접수

서울대교구 쑁고개성당 사무원 모집

분야: 사무원 1명(계약직, 추후 정규직 전환 가능)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된 신자로 사무행정, 회계업무 PC 업무 가능한 분 / 문의: 02)873-2333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 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해당자 개별 연락) / 12월13일(수)까지 사무실 방문·우편(우 08785, 서울시 관악구 쑁고개로 79 쑁고개성당) 및 이메일(uld@seoul.catholic.kr) 접수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그리스도의교육수녀회	매월 첫째주(일) 12시30분	수녀원(평창동)	010-8852-9817 황 수산나 수녀
마리아의 작은 자매회	수시	수녀원(서울·강릉)	010-9460-8790 문자문의 / cafe.daum.net/blueveil
성 베네딕도회 요셉 수도원	수시	수도원(남양주 별내)	010-4241-1210 성소 담당
작은예수수도회	수시	수도원(군자동)	010-8920-2111
천주교서울국제선교회	수시	선교회(한남동)	010-2749-4596, 02)749-4596
천주의 성 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11월18일(토) 14시	수도원(개화동)	010-3800-1579
티없으신 마리아 성심수녀회	11월19일(일) 14시~17시	가톨릭회관 311호	010-2724-4819

서울 주 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신간****21세기 제롬 성경 주해 4
창세기**

도미니크 마클 SJ, 마크 S. 스미스 지음
성서와 함께 | 272쪽 | 2만1천원
문의: 02)822-0125

『21세기 제롬 성경 주해』는 '성서와 함께' 50주년 기념 도서로,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에 충실하면서도 최신의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가톨릭교회의 성경 해석의 기준을 제시하는 책이다. 그 첫 번째 책인 『창세기』는 도미니크 마클 SJ의 '오경 개관'과 마크 S. 스미스의 '창세기 입문·주해'로 구성되었다.

**신간****고구마꽃이
피었습니다**

조경자 지음
바오로딸 | 200쪽 | 1만3천원
문의: 02)944-0944

강화도에서 농사를 지으며 우리 시대 모두의 숙제가 된 생태 영성을 몸소 배우는 삶을 살며, 이 시대를 향해 함께 나아가자고 외치는 한 수도자의 체험이 담긴 수필집이다. 작은 일부터 실천하는 것이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저자는 현대인들에게 말한다.

**신간****그리스도를 입다**

안토니오 피타 지음
바오로딸 | 176쪽 | 1만3천원
문의: 02)944-09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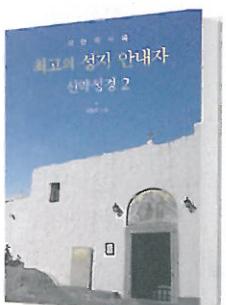
그리스도를 입는다는 건 날마다 옷을 갈아입는 일과 다르다. 그것은 그 분을 마주 뵙는 순간까지 계속될 '닮음의 여정'을 살아가며 하루하루 그리스도의 성령을 입는다는 뜻이다. 이 책은 바오로 서간의 주요 부분에 관한 깊은 통찰을 바탕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혀 오롯이 그 분에게 물들어 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독자들을 초대한다.

**신간****성경의 길을 따른
어린이 여정**

2단계 구약2: 탈출기~신명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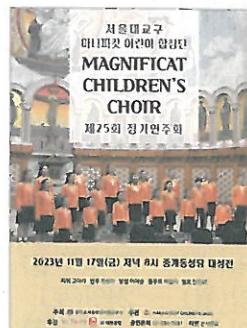
생활성서사 지음
생활성서사 | 128쪽 | 1만원
문의: 02)945-5987

기존의 교리 교육 위주의 교재와는 달리 성경을 중심으로 재미있게 구성된 주일학교 어린이 교재다. 초등부 주일학교 6년 동안 구약과 신약 성경의 주요 내용을 골고루 공부하고 성경과 연관된 가톨릭 교리도 배울 수 있도록 총 6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신간****요한복시록
최고의 성지 안내자
신약성경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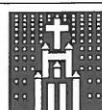
염철호 지음
바오로딸 | 344쪽 | 2만2천원
문의: 02)944-0944

성지순례 안내서이자 동시에 요한복시록에 관한 안내서다. 저자가 여러 번에 걸쳐 성지를 방문하면서 느끼고 알게 된 성경과 전승 이야기를 흥미롭게 풀어가는 가운데, 이천 년 전 에페소 주변이라는 구체적 현장으로 옮겨가 당시 저자와 독자의 관점에서 요한복시록을 해석함으로써 복시록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안내한다.

**공연****마니피캇
어린이 합창단
제25회 정기연주회**

전석 무료 / 인스타그램 magnificat_childrens_choir
문의: 02)338-7831

서울대교구 산하 '마니피캇 어린이 합창단'에서 제25회 정기연주회를 11월 17일(금) 8시 중계동성당에서 개최한다. 존 루터, 조지 거슈윈 등의 아름답고 신나는 성음악과 노동력, 성 착취로 희생된 분들을 위로하는 메시지가 담긴 곡을 노래한다.



제2시대문 · 미포지구 대표본당
천주교연희동성당
<http://www.yeonhui.or.kr>

03727 서울시 시내구 연희로 64-14
본당사무실 : 323-4450~1, 4456 FAX : 336-2233

지구장신부 : 최성기(헨리코)
주임신부 : 류시창(베드로)
부주임신부 : 진현구(베드로)
보좌신부 : 박진호(사도요한)
연령회장 : 이법자(루시아) 010-6288-1683

주일 미사	• 토요일 : 오후 3시 (초등부), 오후 6시 • 주일 : 오전 7시, 오전 9시, 오전 10시 30분 (중고등부·반디), 오전 11시 (교종) 오후 6시 (청년 20, 청년 30)	유아세례	홀수 달 첫째 주일 오후 4시 30분
		혼인면담	매월 셋째 주 일 오후 3시
평일 미사	• 월요일 : 06시 화요일 : 10시, 19시 수요일~금요일 : 06시, 10시 토요일 : 06시	성모신심미사	매월 첫째 토요일 오전 10시

축하합니다



첫영성체를 하는 어린이들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 ◎ 초등부 첫영성체 : 11월 18일(토) 오후 3시
- ◎ 수험생 축복 미사 : 11월 14일(화) 오후 7시

◎ 수험생 부모 하루 피정

일시 : 11월 16일(목) 오전 8시 40분 ~ 오후 2시
문의 : 보좌신부 (010-3854-1317) / 회비 : 만원

◎ 2023년 중고등부 가을소풍

일시 : 11월 12일(주일) 오전 8시 30분 ~ 오후 8시
장소 : 롯데월드 / 회비 : 30,000원
대상 : 중등부 1학년 ~ 고등부 2학년
접수 : 학년 담당 선생님 전화 or 카톡
문의 : 사도요한 교감 (010-4041-3769)

※ 11월 12일(주일) 10시 30분 미사는 없습니다.

◎ 구역성지순례 단체사진 시상식(형제참여도)

일시 : 11월 12일(주일) 오전 11시 교종미사 중

순위	구역
1위	2구역
2위	3구역
3위	8구역+9구역

◎ 여성구반장 회합

일시 : 11월 12일(주일) 12시 / 소성전

◎ 병자영성체

일시 : 11월 17일(금) 오전 10시 미사 후

◎ 남성총구역 족구대회

일시 : 11월 19일(주일) 오후 2시 ~ 오후 5시

장소 : 서대문 청소년 수련관

문의 : 남성총구역장 (010-4913-1158)

◎ 문화학교 12월~2월 학생모집(주일학교)

수강과목 : 바이올린, 통기타/우쿨렐레, 미술, 한글캘리그라피
접수기간 : 재접수 - 11월 15일(수) ~ 19일(주일)

신규접수 - 11월 20일(월) ~ 24일(토)

개강 : 12월 2일부터 / 매주 토요일 수업

접수 및 문의 : 카카오채널

「연희동성당문화학교」 친구추가 후 등록, 문의



주님 저의 하느님 제 영혼 당신을 목말라하 나이다-

◎ 연령회 남·여 회원 모집

문의 : 루시아 회장 (010-6288-1683)

◎ 2024년 각 단체 예산 신청서를 11월 19일(주일) 까지 사무실로 제출 바랍니다. 신청서는 맑은고딕 서체, 11포인트, 엑셀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단체 예산 신청서 양식은 연희동성당 홈페이지 참여마당 자료실에 있습니다.

◎ 부활 판공성사, 성탄 판공성사를 보신 후 반드시 성사표를 제출하시거나 사무실에 말씀해주세요
합니다. 교직에 성사 이력이 3년 동안 입력되지 않으면 냉담자로 처리됩니다.

◎ 승합차 사용 안내
연령회의 원활한 상가 협조를 위해서 모든 단체들의 승합차 사용은 당일만 가능합니다.

◎ 오늘은 평신도주일 2차헌금이 있습니다.

◎ 교무금 책정 현황 (2023. 11. 5)

총세대	책정세대 (책정율)	납부세대 (납부율)	2022년 책정율	2022년 납부율
2,041	836 (41%)	805 (39.4%)	43.8%	41.8%

교무금계좌번호 | 우리은행 | 137-04-110875

※ 책정한 세대는 12월분까지 납부해주시고,
미책정 세대는 빠른 시일 내에 교무금을 책정하신 후
2023년도 교무금을 완납해주시기 바랍니다.

◎ 연령회 감사헌금

故 김상희 베드로 상가 삼십만원

◎ 감사헌금 (10월 30일 ~ 11월 5일)

곽선모	오천원	오하나	삼십만원
익명	일십오만원	익명	일십만원
익명	오만원	손은지	일십만원
익명	사만원	익명	오만원
김재근	오만원	익명	일백만원
익명	일십만원
故 김상희 베드로	삼십만원

◎ 우리들의 정성 (연중 제31주일)

교무금 14,290,000원
주일헌금 5,470,000원

입당	21	봉헌	217, 512, 219	성체	156, 188, 172	파견	83
----	----	----	---------------	----	---------------	----	----